

2. 원제주인(原濟州人) 도래(渡來) 수수께끼³⁾

열쇠는 항해학(航海學)

제주도(濟州島)가 대륙으로부터 떨어져 섬이 된 것은 대체로 1만년 전후로 보고 있다. 홍적세(洪績世)가 끝나고 충적세(沖積世)로 들어서는 무렵이라고 하겠다.

섬이 되고나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기원전 2천~3천 년 전으로 보고 있다. 이 무렵부터 살기 시작한 원제주인(原濟州人)은 어디서 온 누구였을까. 그들은 어떤 이유로 무엇을 타고 도래하였을까.

여기에 대하여는 일찍부터 학술회의 등에서도 논점이 되고 대립돼

3) 『한라일보』(삼각봉), 1993. 11. 19 (금), 본사 주필.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한 마디씩 하였고 또 오랫동안 토론이 계속돼 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이것을 푸는 데는 옛날처럼 고고학이나 언어학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실로 많은 과학과 자료들이 동원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조선학(造船學)이요 항해학(航海學)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에 4천~5천 년 전에 사람들이 도래하였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배를 타고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때 그 배는 어떤 배였고 어디서 어떤 바람 어떤 조류(潮流)를 따라 왔을 것인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배의 발달사를 보면 통나무배나 뗏목 같은 배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배들은 강이나 연안에서 사용되었지 대양을 건너 항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항해가 가능했던 배를 생각한다면 훨씬 그 뒤의 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동양의 경우는 더욱 그러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한다면 중국에는 기원전 6세기경에 조선과 항해기술이 도입된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中國)의 조선(造船) 기술

제일 먼저 발달된 곳은 강남의 회계(會稽) 지방과 동야(東冶) 지방이었다. 그 무렵 오(吳)나라는 강력한 수군(水軍)을 보유해 있었으며 기원전 5세기 초에는 해로를 통하여 제(齊)나라[산둥(山東)지방]를 공격한 기록을 볼 수 있다. 그 뒤로 제(齊)나라에도 조선기술이 전파되었으며 중

원대륙으로 보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 강북지방으로 조선술이 퍼진 것은 전국시대의 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제주도의 원주족에 대하여는 더욱 풀기 어려운 난제가 된다. 따라서 원제주족의 도래에 대한 수수께끼를 푸는 데 있어서는 당시의 조선과 항해에 대한 추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요, 열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최근 일본(日本)·중국(中國) 등의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고대(古代) 동북아시아의 문화교류에 관한 연구라고 하겠다.

특히 조선(造船)·항해(航海)학적 측면에서 이런 연구의 일익을 담당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모자이 도라오(茂在寅男)·동경상선대(東京商船大) 명예교수 교수가 있다. 일본(日本)의 조선학 항해학의 권위자다. 그가 오늘 제주도를 찾아온다. 동경서북연구회(東京徐福研究會) 회장이기도 한 그는 회원 20여 명과 더불어 내도할 예정인데 주로 서북(徐福) 집단의 제주도 도래에 대한 조사 연구가 주목적이라고 하겠다.

서북(徐福)의 제주도 도래설(渡來說)에 대한 팀 조사 활동으로서는 1991년의 일본(日本) 좌하서북회(佐賀徐福會), 1992년의 일본서북연구회(日本徐福研究會)에 이어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다. 모자이(茂在) 교수는 이미 논문이나 학술발표회의 등을 통하여 서북선단(徐福船團)이 일본(日本)으로 집단 망명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를 거쳐 갔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여러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의 설(說)에 따르면 서북(徐福)선단의 항로는 중국 해주만(海州灣)을 출발 산둥(山東)반도[성산두(成山頭)] - 한반도서해안 - 제주도(濟州島) - 북

구주(北九州)에 이르는 북로(北路)와 해주만(海州灣, 연운항連雲港) - 영파(寧波) - 오키나와 - 제주도(濟州島) - 북구주(北九州)에 이르는 남로(南路) 모두가 가능했다고 말하고 있다. 여름에는 북풍이 불지 않으므로 북로를 이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겨울에는 북풍과 소북(蘇北) 연안류를 이용 영파(寧波) 부근에 이르고 여기서 황해난류를 타고 북으로 진출했다고 할 것이다.

모자이[茂在] 교수의 답사

이번 모자이[茂在] 교수 일행의 제주도 현지답사는 서복집단(徐福集團)의 제주 도래 연구에 또 하나의 수확을 가져오게 되리라는 기대와 함께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모자이[茂在] 교수가 고대 선박과 항해학의 권위자로서 특히 연구가 부족한 이 방면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전기가 되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여기서 필자가 덧붙여 바라고 싶은 것은 모자이[茂在] 교수 일행의 이번 답사가 비단 서복(徐福) 집단의 도래설에만 그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다. 최근에 열을 올리고 있는 고대 동북아시아의 문화교류연구가 제주도(濟州島)와 한반도를 포함,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연구는 한 두 사람의 연구나 한 나라 학자들의 연구보다는 관련 있는 여러 나라 학자들의 공동 연구가 더욱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가 진전된다면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제주인(原濟州人)의 도래(渡來)에 대한 수수께끼도 저절로 벗겨지리라 믿는다.